

'K-팝 원조는 목포다' 뮤지컬 콘서트

이난영&김시스터즈 박물관 내일 유달산 편백숲 무장에 나눔길서
60년 전 미국서 활동한 걸그룹 김시스터즈 성장 과정 등 재조명



'K-팝 원조는 목포다' 뮤지컬 포스터.

김시스터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에 앞서 60년 전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걸그룹이다. 이난영이 딸과 조카를 '여성 보컬 그룹'으로 결성해 1950년대부터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K-팝 원조로 성장시켰다. 이에 이난영의 고향 목포는 K-팝 고향(hometown)이라 할 수 있다. '이난영&김시스터즈 박물관'은 2일 오후 3시 유달산 무장에 나눔길에서 'k-POP 원조는 목포다' 뮤지컬 콘서트를 연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뮤지컬 콘서트는 실내공연의 관념에서 벗어나 유달산 편백 숲속에서 무대 설치 없이 자연이 무대이며, 자연이 객석인 독특한 연출로 진행된다. '향수, 눈물은 거름되어 노래로 꽃 피우고'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뮤지컬 콘서트는 이난영이 김시스터즈를 성장시킨 과정과 김시스터즈가 K-팝 원조로 성공하기까지의 드라마틱한 스토리와 노래

등을 화려하게 부활시키고자 한다. 개막 식전에는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 노래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버전으로 편곡 창작해 K-팝의 기조인 글로벌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목포 출신 이난영 가수의 삶과 K-팝 원조인 김시스터즈의 성장 과정을 음악으로 담아내고, 음악사적으로는 목포의 글로벌 방향을 모색해 'K-팝 원조 목포'라는 콘텐츠를 재조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난영&김시스터즈 박물관은 화가의 집에서 2020년 6월 개관해 이난영 및 김시스터즈에 대한 학술연구와 음악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박물관은 김시스터즈 리더 김숙자씨가 기증한 이난영 자료와 김시스터즈의 악기, 무대복, 생활용품, 이난영의 아들 김보이스 무대복 등 총 100여점 이상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장해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은 그동안 목포 시(詩)를 노래하다, 김시스터즈 김숙자 토크, 유달산 편백숲-자연의 소리 치유 음악회, 'K-POP 원조는 목포다' 포럼 등을 개최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바다가 보이는 '1004카페 하의점'.

빼어난 바다 뷰와 차 한잔의 여유 즐기세요

신안군 1004카페 하의점 개점

신안군은 하의도 여객선터미널 2층에 문화 및 휴게공간 '1004카페 하의점'을 개점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점한 '1004카페 하의점'은 바다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자리잡고 있으며, 내부는 엔틱한 원목 소재로 탁자와 의자를 설치해 고급스러움을 더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카페 공간은 신안군 자활기금 1200만원, 중앙자산기움펀드 2400만원을 지원받아 커피머신, 장비 등을 설치했다. 운영은 다문화 이주여성과

저소득층 주민 등 2명에게 전문 바리스타 교육을 지원해 카페 인력으로 참여하게 했다. '1004카페 하의점'은 섬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내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의미가 색다르다. 조성된 공간은 지역주민의 소통 및 힐링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카페 하의점이 지역경제는 물론 주민들이 차 한 잔의 여유와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난 26일 '제1회 명사십리 치유길 맨발 걷기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신지 명사십리 해변을 '맨발걷기 치유길 1호'로 선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해변 '맨발걷기 치유길' 1호 선포

국내 첫 FEE 블루플래그 인증 해변
완도군이 지난 26일 '제1회 명사십리 치유길 맨발 걷기 페스티벌'에서 신지 명사십리 해변을 맨발걷기 치유길 1호로 선포했다. 완도군은 선포식과 함께 관광객과 주민 등 400

여명과 함께 모래 해변 2km와 황토길을 맨발로 걸었다. 신지 명사십리는 공기 비타민인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 풍부하고 국제환경교육재단(FEE)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에 부여하는 블루플래그 인증을 국내 최초로 받은 곳이다.

명사십리 모래는 가늘고 단단해서 맨발로 걷기에 좋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은 청정한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해양치유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상의,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 간담회

지원정책 설명·애로사항 청취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초청해 상공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에는 목포상의 정현택 회장과 상공의원, 조종래 청장과 간부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종래 청장이 직접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택 회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기업인들은 꺾이지 이겨내며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청장님을 모시고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좋은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목포상의간 유대가 돈독해지고 밀접히 협력하여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종래 청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상의는 매월 관내 주요기관장을 초청해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사 기업경영 애로 해소와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눠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 남도추모공원 플라스틱 조화 줄인다

2026년 11월부터 반입 금지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에서는 추모에 쓰이는 플라스틱 조화 줄이기에 나섰다. 해남군은 2026년 11월부터 추모공원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할 방침으로 앞으로 2년 유예

기간 동안 추모객에 이런 사항을 적극 알려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추모공원내 플라스틱 조화 찌꺼기 없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에 따라 생화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해남형 ESG실천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인

식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년 4월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해남, 완도, 진도 3개군 협력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10월 현재 기존 누적 건수 화장 1만7902건, 봉안당 2511건, 자연장지 2301건의 이용률을 보인다. 해남군 관계자는 "공원 홈페이지에 생화 사용 안내문을 게시하고 공원 이용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명절 때 생화 사용 캠페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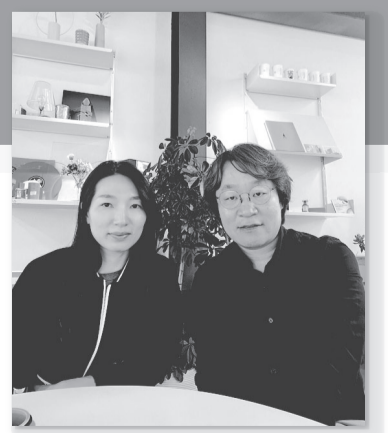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